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계

모의논술

수험번호 () 성명 ()

※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언어관의 공통점을 (다)의 ㉠과 ㉡의 입장과 관련시켜 서술하시오. 그리고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단어의 함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해 보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밝히시오. (1,200자, 100점)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줄여서 PC)은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종교, 성, 성적 취향, 신체, 직업,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 혹은 운동을 가리킨다. 본래는 다민족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게 된 용어이다.

PC에서 주되게 겨냥하는 말은 이른바 ‘혐오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언어 표현을 일컫는다. 그러나 PC에서는 이처럼 노골적인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만이 아니라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표현까지를 모두 문제 삼는다. 미국에서 ‘chairman’을 ‘chairperson’으로, ‘nigger’를 ‘African American’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사랑’에 대한 사전적 뜻풀이에서 ‘이성의 상대’ 대신에 ‘어떤 상대’로 바꾸었던 것도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늘어났다. 주된 이유는 다양성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 오히려 또 다른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단어를 고르는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PC 경찰’이라고 부르면서 비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PC’라는 말 자체에 냉소적인 어감이 담기게 된 것이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에서, 어떤 ‘올바름’은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들 다양한 관심들은 결국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가 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두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언어가 사고보다 더 중요하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언어는 사고와 행동, 지식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기호(sign)에 의해서 매개될 수밖에 없는데, 언어가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습득하여 쓰고 있는 언어에 따라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식까지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고가 언어보다 더 중요하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인간이 외부적 환경을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 도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유기체의 인지 도식이나 지식의 구조를 환경적인 상황이나 압력에 부합하도록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때, 이 입장은 이러한 과정이 언어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대신 이 입장은 언어를 사고 혹은 지식이 형성된 이후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 매체로 보고, 언어는 사고가 형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이 기왕에 존재하던 말만을 쓰지 않고 전에 없던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는 증거이다.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 일반적 뜻풀이의 몇 가지 사례

*결손가정(缺損家庭) :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따로 살아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	*애완동물(愛玩動物) :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애완'의 '완(玩)'에는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 있음.]
*미망인(未亡人) :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혼혈 가정(混血家庭) : '혼혈'은 서로 인종이 다른 혈통이 섞임 또는 그 혈통을 뜻함. '혼혈 가정'은 그렇게 구성된 가정을 가리킴.
*상경(上京)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감. 서울의 북쪽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우에도 씀.	*후진국(後進國) : 산업, 경제, 문화 따위의 발전 수준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